

# 체험의 소설화, 강경애의 글쓰기 방식

서정자\*

1. 들어가며
2. 체험의 소설화, 강경애의 글쓰기 방식
  - 2.1 궁핍체험의 묘사와 빈궁소설
  - 2.2 현실체험의 묘사와 경향소설
  - 2.3 간도체험과 항일서사
3. 나오며

---

\* 초당대학교 교양과 교수

국문초록

이 글은 강경애의 문학에 대한 평가가 「인간문제」에 집중하여 리얼리즘 성취에 편중되어 있다고 보고 강경애 문학의 진면목은 체험의 소설화에서 이룩한 글쓰기 방식의 특성에 있다고 주장한 글이다. 체험의 소설화라는 시각으로 강경애문학의 진면목을 살피기 위해 우선 감각묘사에 탁월한 작가가 먹는 묘사에 한하여 감각묘사가 없는 점을 살펴봄으로써 현실체험을 바탕으로 한 작가의 세계관의 방향을 읽어보았다. 다음 출판과정에서 장하일이나 출판사의 첨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북한판 「인간문제」는 강경애 문학의 정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북한판 「인간문제」와 신문연재 원본의 대조를 통하여 프로문학 창작방법에 맞지 않더라도 체험에 충실했던 강경애의 글쓰기 방식을 부각하였다. 세계관과 창작방법 기술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체험을 살려 글을 쓴 작가가 강경애였다.

이처럼 체험을 그 어떤 창작방법보다도 우선시 하였던 강경애의 간도체험은 항일문학을 낳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으며 특히 만주와 간도의 항일문학이 희귀한 우리문단에 소중한 유산을 남게 하였다. 강경애의 출판서지가 자세히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남한에서 처음 강경애 소설이 출판되기까지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밝히면서 강경애문학연구에 새로운 자료를 보태보려 하였다.

핵심어 : 강경애, 「인간문제」, 정본, 체험의 소설화, 감각묘사.

## 1. 들어가며

북한의 강경애 문학에 대한 언급을 보면 해방 전 프롤레타리아 소설 문학이 거둔 가장 높은 창조물인 동시에 귀중한 유산이라고 하면서 반드시 “치밀한 구성, 섬세하고 생동한 세부묘사와 내면세계의 추구, 세련된 언어형상 등 정서적 산문 소설의 특징을 진하게 보여 준다”고<sup>1)</sup> 덧붙이고 있다. 강경애의 소설은 되풀이 읽으면 읽을수록 감칠맛이 느껴진다. 경향소설이 지닌 프로파간다적 메시지 외에 정감마저 느껴지는 것이 강경애소설이다. 이 감칠맛은 어디에서 오는가? 지금까지 우리의 강경애문학연구는 비판적 리얼리즘, 경향소설에 집중되어왔고 평가 역시 식민지 시대에 이룩한 리얼리즘의 탁월한 성과로 결론지어왔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리얼리즘의 성취에 편중되어 그의 문학이 이룩한 예술적 성취에 관해서는 별 주목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작가가 강경애의 성실한 관찰과 묘사로 인해 민중의 생동감 있는 삶뿐만 아니라 식민지시대 역사해석에서 소외된 대중의 근대성, 일상성, 그리고 공간성마저 읽을 수 있다. 이는 그가 남다른 체험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 절실한 체험을 소설화하면서 글쓰기에 고심한 결과이다. 극도로 궁핍한 농촌과 도시의 체험, 유 이민의 땅이자 항일 독립운동의 거점인 간도의 체험,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체험은 그로 하여금 당시의 사상적 주류이자 현실극복의 논리인 계급사상을 받아들이게 하였으나 동시에 언제나 체험에서 얻은 현실을 정직하게 반영하고자 애써 강경애 특유의 소설세계를 이룩하였다.

작가 박화성은 강경애를 두고 “뿌리가 없는 작가”라고 한 적이 있

1) 김창현, 「강경애의 소설 작품에 대하여」, 『인간문제』(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p.11.

『조선대백과사전』 1, 「강경애」(백과사전출판사, 1995), p.367. 등.

다. 1987년 여름, 필자가 강경애의 남편 장하일에 대해서 물었을 때 장하일이 애국심이 깊고 사상이 견고하며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한 말이었다. 박화성은 남편 김국진과 장하일이 간도의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데다 강경애와도 친해 간도를 방문하기도 하였는데 필자는 박화성이 강경애를 뿌리가 없는 작가라고 한 것은 강경애를 라이벌로 의식한 말씀인가, 싶었다. 그러나 박화성이 말한 “뿌리가 없는 작가”라는 것은 강경애가 작품에 사상성을 드러내지만 그 사상성이 박화성이 보기에 프로가 아니다, 라는 의미였다고 생각된다. 박화성의 자전적 소설 「북국의 여명」을 보면 주인공이 프롤레타리아 투사로 성장하기까지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독서회와 각 단체의 모임, 조직활동, 실천운동 등 물샐틈없는 단련을 거쳐 투사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박화성의 눈으로 보면 관념을 앞세우기보다 체험에 바탕 하여 소설을 쓴 강경애가 뿌리 없는 작가로 보인 것은 당연하였는지 모른다.

박화성의 지적처럼 강경애는 그의 사상적 뿌리가 튼튼하지 못했다는 지도 모른다. 또한 강경애는 사상적 지식에서 장하일의 지도를 받았는 지도 모른다. 강경애의 짧은 글 「원고 첫 낭독」에는 남편 장하일이 강경애의 첫 독자가 되고 강경애는 남편의 지적을 존중하여 글을 고친다고 되어있다. 작가가 자신의 글을 타의에 의해 고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끝이끝대로 고백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 강경애의 작가수업 방식을 엿볼 한 단서가 있다. 강경애는 배우기 위해서라면 어떤 길도 갔던 것이다. 일찍이 17세 되던 1923년, 승의여학교 3학년 재학 중 동맹휴학 사건의 주모자로 퇴학을 당해 고향에 돌아왔다가 양주동과 서울로 가서 동거한다. 이 때 동덕여학교에 편입하여 1년간 다닌 강경애는 양주동과 헤어져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다.’ 이 때 양주동을 따라간 것은

배우기 위해서였다. 배움에 대한 강경애의 열정은 양주동의 글에서 넉넉히 읽을 수 있다.<sup>2)</sup> 그러나 강경애는 양주동에게 실망하고 그를 떠난 것으로 되어 있으며(1924년) 이후 강경애의 양주동에 대한 글(1931)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강경애의 스승으로서 양주동은 그 기간이 일 년이 채 되지 못하였던 것 같다. 18세 때의 이 출분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강경애의 학비를 대며 지원한 형부는 그래서 돌아온 강경애의 뺨을 때렸고 그로 해서 강경애는 이후 중이염으로 오래 동안 고생하였다. 당시의 용어로 본다면 자유연애에 빠진 문제의 신여성이었다.

그의 두 번째 스승은 남편 장하일이었다. 강경애의 수필 「고향의 창공」을 보면 강경애가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고자 하였는지 알 수 있다.

“문예란 말만 들어도 나는 입을 헤하고 벌리던 그 때라 신문이나 잡지 권을 애써 얻어들여 가지고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붙잡고 있다.(중략)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때야말로 눈에 비쳐지는 문구란 문구는 모를 것밖에는 없다. 어떤 때는 책 한 권을 다 읽고 나도 머리에 남는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 재독을 한다, 삼독을 한다, 내지 오륙 차를 거듭해도 점점 더 아득하다. 나는 기가 있는 대로 치밀어서 벌떡 일어나 미친년같이 온 방을 휩쓸다가도 못 견디어서 밖으로 뛰어나간다.”<sup>3)</sup>(밑줄 인용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이 안타깝게 독학을 하던 이런 상황에서 강경애는 장하일을 만났다. 양주동과의 전력은 고향에도 머물지 못하게 해서 강경애는 (만주일대를)수년간 방랑을 하고 병을 얻어 돌아온 시점이었다. 다시 고향에 돌아와 아내가 있는 장하일을 만났으며, 두

2) 양주동, 『문주반생기』(신태양사, 1960).

3) 강경애, 「고향의 창공」, 이상경 편지, 『강경애 전집』(소명출판사, 2002), p.759.

사람은 결혼을 하고 그 까닭에 장연에 살 수 없어 인천을 거쳐 간도에 간 것으로 되어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시 유행인 자유연애나 불륜인 듯하지만, 강경애와 장하일은 사제관계 또는 동지관계였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남편에게 원고를 읽어 듣기며 비평을 기다릴 이치가 없지 않겠는가. 배우기 위해서는 도덕적 비난도 무릅쓴 여성, 문학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은 여성이 강경애였다.

강경애의 소설은 사실 장하일을 만난 이후 변화를 보인다. 그러나 강경애의 소설은 현실극복의 논리로서 사회주의적 전망을 수용하면서도 관념에 빠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에게는 이 데올로기에 상응할 절실한 현실체험이 있었다. 체험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소설 쓰기란 있을 수 없지만 그의 체험은 다른 작가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강도를 지닌 것이었다. 이 강렬한 체험은 그의 문학을 규정하고 창작방법을 창출한다. 말하자면 체험과 관념을 끌어안고 씨름을 벌이는 형국이다.<sup>4)</sup> 강경애의 체험과 그 글쓰기방식에 역점을 두고 그의 문학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체험의 소설화, 강경애의 글쓰기 방식

### 2.1 궁핍체험의 묘사와 빈궁소설

강경애의 전기적 자료는 극히 부족한 편이다. 남북한의 자료를 모아 온 짚지 않은 연구기간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의 성명도 아직 밝혀지

4) 김기진, 「구각에서의 탈출」(『신가정』 1935.1, 영인본), p.453. 발봉은 “강경애가 현실을 꺾어안고 씨름하는 것은 전혀 독자만이 볼 수 있는 장관의 하나이다.”라고 하였다.

지 않았을 정도이다. 이규희, 양주동, 안수길, 현경준, 최태응의 기록과 작가가 남긴 기록, 이상경교수 등의 노력에 의한 북한의 자료를 보태 보아도 강경애의 연보에서 해명되지 않은 부분은 적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 찾아본 강경애의 전기적 요소들에서 작가 강경애를 읽어내는 일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 같다. 1906년 황해도 송화군 송화에서 가난한 농민의 딸로 태어난 강경애는 다섯 살에 아버지를 잃었다. 가난 때문에 고모 집으로 갔으나 역시 주리면서 살아야 해서 어머니는 나이 많고 불구자인 최도감의 후취로 개가해 간다. 열 살에 장연여자청년학교를 거쳐 장연소학교에 다니면서도 월사금과 학용품 값이 없어 도둑질을 생각할 정도로 궁핍한 학교생활이었다. 형부의 도움으로 1921년 평양 송의여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역시 궁핍한 학교 생활을 해야 하였다. 양주동을 만나 서울에 와서 동거하다가 1924년 9월 헤어졌는데 헤어진 이유는 양주동의 절충 주의적 사상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강경애 친구의 동생인 고일신씨(작가 이무영씨 부인)의 증언에 의하면 가난으로 둘의 결혼이 불가능한 때문이었다고 한다. (고일신씨를 만난 작가 이규희선생의 전언) 그의 삶에는 궁핍이 늘 따라다녔다. 그의 궁핍한 생활에 대해서는 자전적 소설 「원고료 이백 원」에 잘 나타나 있다. 그의 소설에서 궁핍은 핏진하게 그려져 최서해 이기영 조명희 등과 나란히 그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이다.<sup>5)</sup> “현실의 소재는 예술 작품 속에 기계적으로 반영되거나 사실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세계관에, 작가의 현실에 대한 태도에 의하여 변형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는 역시 양식적 형성의 가장 본질적인 한 모멘트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누시노브는 말한다. “세계관은 또한 예술작품 그 자체에 있어서

5) 이상경, 『작품해설-강경애의 시대와 문학』, 『강경애 전집』(소명출판사, 2002), p.827.

도 직접 표현된다. 만일 작가가 피차의 행위로서 자기의 견해라든지 찬성 또는 부정 등을 하나도 직접 표시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작품 속에 묘사되는 사건이나 그 성질의 객관적 의의는 작품 자체의 세계관과 사상적 방향을 규정한다.”<sup>6)</sup>

강경애의 소설에 묘사된 궁핍상은 “소설적 관습을 깨뜨린 것이며” “소설이 과연 이 지경에까지 이르러도 좋은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벼랑에까지 몰고 간 것으로” 특히 「지하촌」은 “식민지 한국의 궁핍상을 가장 확실히 보여준” 작품이라 여겨져 온다.<sup>7)</sup> 강경애의 궁핍묘사는 곧 작가의 세계관과 사상적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초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궁핍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궁핍 묘사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먹는’ 묘사이다. 강경애는 감각적 묘사에 출중하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 감각적 묘사를 통해 묘사하고자 하는 대상을 생동감 있고 실감나게 표현해낸다. 이러한 감각묘사에 뛰어난 강경애의 묘사에서 유독 등장하지 않는 감각이 미각묘사이다. 그의 글쓰기 방식을 살피기 위해 우선 절묘한 감각묘사부터 살펴보자.

나는 듯 마는 듯 송진내 그옥이 피우는 그 소나무!(후각 「동정」), 담배 연기가 물큰 스칠 때 그의 코가 벌름 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후각, 시각 「동정」), 밤은 어지간히 깊어진 듯 나는 깊은 산림 속으로 들어서는 듯 함을 내 뺨에 찰싹 느꼈습니다(촉각 「번뇌」), 술내를 밥 김처럼 피우면서(후각 「번뇌」), 계순이가 한 빨래는 박꽃처럼 희고 부드러우며 비누와 양젓물 내가 일절 없고 맑은 샘물 내가 물씬하니 나지요(시각, 후각 「번뇌」) 그의 타는 듯한 얼굴이 갑자기 흐려지므로 나는 등불의 관계인가 하고 등불을 쳐다보다가 다시 그를 보았습니다(시각 「번뇌」), 담담한 시냇물 내가 내 코끝을 후려칩니다(후각 촉각 「번뇌」), 손에서는 쇠 비린내가

6) 누시노브, 「세계관과 방법의 문제 검토-문학과 양식의 문제, 특히 소재에 대하여」 『창작방법론』(문경사, 1949), pp.74~75.

7) 김윤식, 「지하촌」, 『한국문학명작사전』(일지사, 1979), p.270.



마치 생선을 만진 손 같구려(후각 「번뇌」), 이마는 따갑고, 땀방울이 흐르고 먼지가 연기같이 끼어 그의 코밑이 매워 건딜 수 없다(촉각 시각 후각 「지하촌」) 어머니는 갈잎 내를 확 풍기면서 그의 곁으로 다가선다(후각 「지하촌」), 큰넝네 집에서는 모깃불을 피우는지 향긋한 쑥 내가 솔솔 넘어오고 이따금 모깃불이 꺾적꺾적 하는데 두런두런 하는 소리에 귀를 세우니 바자가 바작바작 소리를 내고 호박잎의 숨털이 그의 볼에 따끔거린다.(후각, 시각, 청각, 촉각 「지하촌」)

두 세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그의 감각 묘사의 예를 십여 개 들어보았거니와 그의 감각을 통한 묘사는 소설에 생동감을 주고 그리하여 소설과 독자의 거리를 좁혀 독자로 하여금 소설 속에 몰입하게 하는 효과를 낸다. 이러한 감각적 묘사는 그의 소설이나 수필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가 얼마나 효과적 표현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알 수 있는 점이다. 강경애의 문학에서 느껴지는 감칠맛은 이 감각묘사에서 오는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궁핍묘사에서 가장 중요한 ‘먹는’묘사는 미각에 대한 묘사가 극히 드물다. 먹는 묘사를 살펴봄으로써 작가의 글쓰기 방식 또는 사상적 방향을 가늠해보기로 한다. 그의 초기작 「어머니와 딸」<sup>8)</sup>에서 궁핍의 묘사는 둘째의 극심한 무지와 궁핍, 그리고 예쁜이 첩으로 팔려가 개까지 쌀밥을 먹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 정도의 것이다.

둘째는 “부엌으로 나가서 들그렁들그렁 하더니 조밥바리와 된장그릇을 안고 들어왔다. 그는 씹씹하며 나뭇단 끌어들이듯이 밥술은 큼직큼직하였다. 부리나케 푹푹 퍼먹은 그는 술갈을 공중에 던지고”,

지주 춘식의 첩으로 팔려온 예쁜은 아버지가 손까지 베어가며 수확한 쌀을 지주에게 흘랑 빼앗겨 자신들은 먹어보지도 못한 쌀밥을 지주

8) 강경애, 「어머니와 딸」, 이상경, 『강경애 전집』, 위의 책, pp.37~46.

네 개까지 먹는 것을 목격한다.

“그는 남몰래 눈물을 씻고 나서 다시 개밥을 보았다. 어김없는 아버지가 애써 지어놓은 쌀밥이었다. 만일 아버지가 저 쌀밥을 보시게 되면 얼마나 아끼실 쌀알이라!”

“...다 늙으신 아버지는 장, 위도 성하시지 못하시건만 파슬파슬한 호 좁쌀 밥을 잡수시며 잘 넘어가지 않는 탓으로 이따금 물 한 모금씩 마시던 것이 방금 보이는 듯 했다.”

먹는 장면이건만 미각묘사가 없다. 밥에서 쌀을 보고 있으며 그리고 아버지는 호 좁쌀 밥을 약 먹듯 물로 삼킨다. 음식에서 맛이 빠져있으며 미각묘사는 찾아볼 수 없다.

다음 「소금」을 보자. 소금 한 말에 이원 이십 전, 백미 한 말에 75전 인데, 소금 값이 쌀값의 세 곱이다 보니 모든 음식이 싱겁다. 역시 맛이 빠져있다.

“남편은 입 밖에 말은 내지 않으나 번번이 얼굴을 찡그리고 밥술이 차츰 느려지다가 맥없이 술을 놓곤 할 때가 종종 있었다. 이 모양을 바라보는 그는 입안의 밥알이 갑자기 돌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슬며시 술을 놓고 돌아앉았다.”

미각묘사는 돌로 굳어버리고 만다. 「소금」의 궁핍묘사에서 유명한 해산 후 극도의 시장기를 견디다 못해 ‘파를 먹는 장면’ 역시 미각은 없다.

마침내 그는 파를 입 속에 넣었다. 그리고 우썹 씹었다. 그 때 이가 시끄러하며 딱 맞질린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입을 꺾 벌린 채 한참이나 벌리고 있었다.

침이 턱 밑으로 흘러내릴 때에야 그는 얼른 손으로 침을 몰아넣으며 이

침이라도 삼켜야 그가 살 것 같았다. 그는 다시 파를 입에 넣고 혀끝으로 우물우물하여 목으로 넘겼다. 넘어가는 파는 어찌 그리도 뻑뻑한지, 그의 목구멍은 찢어지는 듯, 눈물이 속 비어졌다. '파를 먹구도 사는가.'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헛간 문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았다.<sup>9)</sup>

헛간에서 새는 비를 맞으며 해산을 하고 나서 추위와 허기에 빠져있는 산모가 뻑뻑한 파를 먹는 장면이라 그 비극적 효과는 극대화되는데 이 장면에서도 미각은 없으며 먹는 상황묘사만 이어진다. '뻑뻑한' 촉각이 있을 뿐이요, 다만 공복을 채우기 위한 물질의 부피가 있을 뿐이다. 이 해산한 산모보다 더욱 비참한 것은 어머니의 젖을 빼앗기고 언니 봉염의 손에 자라는 영양실조의 봉희이다. "젓 빨듯이 입을 뜨물동이에 대고 뜨물을 꿀각꿀각 들여 마시고 있다." 뜨물동이란 구정물동이다. 이에 이르러서 미각은 이미 실종이다. 「인간문제」에서는 어머니까지 밥으로 보일 지경이어서 역시 공복으로 얻어온 도토리며 밥을 움켜쥐어 먹을 뿐 미각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궁핍묘사의 극이라는 「지하촌」을 보자.

그는 파리를 건져내고 밥을 푹 떠서 입에 넣었다. 밥이란 도토리뿐으로 밥알은 어찌다 씹히곤 했다. 씹히는 그 밥알이야말로 극히 부드럽고 풀기가 있으며 그 맛이 달콤해서 기침을 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 맛은 잠깐이고 또 도토리가 미끈하게 씹혀 밥맛이 쓰디쓴 맛으로 변한다. 그래 도토리만은 잘 씹지 않고 우물우물해서 얼른 삼키려면 그만큼 더 넘어가지 않고 쓴 물을 뿌리며 혀끝에 넘나들었다.<sup>10)</sup>

밥알은 씹으면 달콤해서 기침을 할 지경인데 도토리를 씹으면 밥맛

9) 강경애, 「소금」(『신가정』, 1934.8), pp.201~202.

10) 강경애, 「지하촌」, 『조선일보』, 1936. 『신문연재소설전집 5』(깊은샘, 1987), 영인본, p.107.

은 쓰디쓰게 변한다. 모처럼 등장한 밥알에 대한 미각묘사는 도토리의 쓴맛을 표현하는데 동원된 대조범용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먹는다는 것이 이미 저주 그것으로 변질되어있다. 강경애 소설의 궁핍묘사는 이처럼 미각이 실종된 채 이루어져 있다. 미각이 문제가 아닌 시대, 우선 공복을 채우는 것만이 절박한 시대를 이처럼 명징하게 보여주는 묘사가 있을 수 없다. 시각이나 후각 청각 촉각 등 감각 묘사에 탁월한 기법을 보인 강경애가 유독 미각묘사에 있어서 만든 감각적 묘사를 보여주지 않을 뿐 아니라 후기에 갈수록 먹는다는 일을 저주받은 상황으로 그리고 있음은 무엇을 뜻하겠는가. 이는 강경애가 식민지 현실의 궁핍을 가장 문제 삼고 있으며 이 궁핍한 현실은 갈수록 더욱 비참해지고 있음을 드러내려 한 것이다. 궁핍을 절박하게 체험한 작가 강경애는 음식에 관한 묘사에서 이처럼 절실하되 절박한 묘사를 꾸밈없이 보여주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강경애소설이 생동감을 주는 한 근원이 체험을 바탕으로 한 묘사에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궁핍의 문제 극복을 소설의 방향으로 삼고 있는 작가를 만난다. 그는 프로문학의 공식인 창작방법을 따르지 않고도 자신의 궁핍 체험을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세계관을 나타내 '빈궁소설'에 성공한 작가이다.

## 2.2 현실체험의 묘사와 경향소설

강경애의 현실체험 묘사와 경향소설을 논의하기 위해 「인간문제」를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인간문제」의 정본확정 과정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간문제」는 신문 연재 후 남한에서나 북한에서 출판하면서 수정 또는 개작되는 등 복잡한 사연이 있었다. 「인간문제」는 1949년 북한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으나<sup>11)</sup> 남한의 경우 1970년 성음사

11) 해방 이전 출판한다는 광고가 나왔으나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 『한국장편문학대계』12권에 「인간문제」가 실린 것이 최초인데 이 남한 최초의 판본은 변개되는 비극이 있었다. 그런데 북한의 「인간문제」출판 역시 신문 연재 당시와는 다르게 수정된 채 출판되었다. 이 「인간문제」를 구하여 『강경애전집』<sup>12)</sup>에 수록한 이상경교수에 의하면 이 판본은 북한의 노동신문사 부주필이었던 강경애의 남편 장하일이 신문을 스크랩하여 보관하였다가 출판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신문연재본과 달리 수정이 가해진 것은 작가가 퇴고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았으나 장하일이나 노동신문사 편집부에서 침삭을 가했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이 판본에서 장하일 등 제3의 손에 의한 침삭의 가능성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과 달리 남한에서 1970년에야 출판된 「인간문제」는 위에 쓴 대로 작가 이외의 손에 의하여 변개되어 출판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변개란 자구나 문장 등을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줄거리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변개한 작가가 그 사유로 북한에서 호평을 받는 소설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듯이<sup>13)</sup> 이는 반공이데올로기가 낳은 비극이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연구자가 잘못된 이 판본으로 강경애소설을 읽어 강경애 평가에 혼선을 낳았다. 이처럼 남한의 변개된 「인간문제」는 1978년 삼성출판사 판 『한국현대문학전집』12권에서야 『동아일보』에 연재된 원본대로 출판, 복원이 된다. 이 원본 복원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사정이 담긴 장문평의 수필 「교정과 교정」이 『현대문학』 1979년 6월 호에 실렸는데 필자는 최근에야 우연히 이 글을 ‘발견’하였다. 강경애의 「인간문제」가 남한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

---

1949년 출판을 첫 출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2) 이상경, 『강경애 전집』(소명출판사, 2002).

13) 장문평, 「교정과 교정」, 유고집 『낙관주의의 거부』(돌을새김, 2004.9), pp.400~404.

게 되기까지는 삼성출판사 편집자의 숨은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sup>14)</sup>

남한 쪽의 터무니없는 변개와 달리 북한 판 「인간문제」의 수정은 강경애의 세계관과 창작방법과 기술의 통일을 기한 것이다. 강경애는 원본인 신문연재본에서 세계관에 따라 작중인물을 성격화하면서 세계관이나 주제에 반하더라도 자신의 체험에 충실한 기술을 하였다. 말하자면 그의 문학에서 세계관과 창작방법, 기술의 통일을 보여주는 대표작 「인간문제」이건만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목이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되풀이 말하거니와 이처럼 체험에 충실한 기술을 보여주는 것은 강경애 소설의 공통된 특징이다. 그런데 1949년 북한에서 출판된 노동신문사주필 기석복 서문의 「인간문제」에서는 이러한 애매한 대목이 모두 삭제되거나 수정되어 있다. 말하자면 볼록렌즈의 원리에 따라 세계관에 맞게 성격묘사 및 문체나 어조가 통일되어있는 것이다. 수정된 북한 판 「인간문제」와 원본을 대조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면 강경애가 소설 기술에서 체험을 얼마나 중요시하였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신문연재본과 북한판 「인간문제」를 대조해보면 강경애의 체험을 기조로 하는 기법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작업이 되는 것이다.

14) 삼성출판사의 제2편집장을 맡았던 문학평론가 장문평은 절판된 성음사판의 「인간문제」를 저본으로 문학전집 강경애편 출간준비를 하다가 이 문학전집의 편집위원으로부터 「인간문제」가 원본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적을 해준 편집위원이 복사해 준 신문 연재본을 보고 그 다름에 놀라 장편집장은 원본대로 다시 조판 출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삼성 출판사 판의 「인간문제」가 91회와 116회가 누락되었다고 해도 남한에서 원본을 최초로 복원 출간한 공적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강경애 편은 원본에 충실한 작품을 실었을 뿐 아니라 김윤식교수의 해설을 붙이고, 화보에 「인간문제」와 「지하촌」의 신문 연재 첫 회분 사진, 또 연기에 쉽지 않은 강경애 사진자료들을 처음으로 모아놓고 있어 강경애 문학출판에서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 삼성출판사 한국문학전집의 편집위원과 통화가 되었으나 본인의 극구 사절로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이후 「인간문제」는 1988년 임헌영 오현주 역음으로 열사람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나왔고, 1992년 창작과비평사에서 단행본으로 나왔으며 1996년 소담출판사와 신원출판사에서 역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언이나 일본어가 표준어나 우리말로 바뀌어있다.

▷어머이, 어마이→엄마, 어머니. ▷아심찮으이 원→안심찮으이 원, ▷부랑한→불랑한, ▷온가지→온갓 등 방언이 표준어로 바뀐 예인데 아심찮으이→안심찮으이의 경우 의미가 달라지는 데도 바뀌어 있다. 아심찮으이란 기다리던 현상이 우연히 발생하여 도움이 된다는 뜻의 방언이다.<sup>15)</sup> 반면 안심찮으이란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다는 뜻으로 전혀 다른 뜻이 된다.

용어를 바꾼 경우는 ▷종내→일생, ▷도급기→탈곡기, ▷여직공→부인, ▷인부→노동자 등이다. 북한의 표준어 적용이 이루어진 부분으로 보인다.

일어의 경우, ▷아라마 이야다와→그런 말씀은 싫어요. ▷고레 안파노 하트(이게 당신의 가슴)?→이 딸기 빛 내 심장 같애. ▷구루마→우차. ▷와가마마갓데(제멋대로 굴러는)→철없는 데가 있니라. ▷가께 우동→점심 한 그릇. ▷카이상→해산 등으로서 일본어는 삭제하고 우리말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작가가 사망한 후인 해방 후 수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문장 수정의 경우, 통일성의 원리에 따라 묘사의 톤을 고쳤다. 예를 들어 덕호가 면장이 되어 집에 왔을 때 할멈과 선비는 ▷“어딘가 모르게 미덥지 못하던 덕호가 차츰 미더운 것을 깨달았다”고 쓴 것을→“그 영감님이 면장이 되었는가? 하였다.”로 바꾸어 감상적 생각을 배제하고 있다. 거기에 ▷“이애 영감님이 잘나기는 하셨습니다. 글세 면장까지 했으니”도 삭제하였다. 또한 선비가 자기 아버지가 덕호에게 맞은 것이 원인이 되어 돌아가셨다는 말을 생각하고 ▷“그러나 그 말

15) 네이버 사투리사전.

이 참말 같지는 않았다. 지금 덕호가 선비에게 구는 것을 보아”라는 문장에→“그렇지 않을 것 같으나, 소작인이나 또는 빚진 사람을 대할 때는 딴 사람같이 무섭게 되면서 잡아먹을 것 같이 돌변하는 것으로 보아 그럴 싸도 싶었다.”를 새로 덧붙여 넣어 성격묘사에 통일성을 기하고 있다.

군수가 와서 연설을 할 때 농민들은 ▷“저렇게 귀하신 어른의 입에서 자기들이 하는 농사를 찬사 하는 말이 나오니 이것이 꿈인가 하였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감격에 붙들리었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라 하였는데 왜 오늘까지 농사짓는 사람은 못살며 저 덕호 같이 김 한 포기 쥐어도 못 본 사람은 잘 사는고?”로 바꾸어 넣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작가는 원본에서 농민이란 전체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현실을 직시할 수 없고 무지하다고 보아 덕호에 대한 생각이 상황에 따라 바뀌거나 군수가 하는 말에 내포된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감격하기도 하는 것으로 쓰고 있다. 수정은 이런 부분을 삭제하고 성격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도 법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덕호 같은 자가 면장이 되고는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첫째는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고 지주에 대한 반감을 추가하였다.

셋째, 첫째와 관련한 에피소드 중 첫째와 첫째어머니와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들을 삭제하여 첫째와 첫째어머니를 신분 상승시킨 것이다. 개똥이네 마당질을 할 때 첫째가 분에 욱하고 내달아 구루마에 실린 벼섬을 내렸는데 그로 말미암아 주재소에 끌려가고 결국은 밭을 떼인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는 묘사가 많이 달라졌다. 우선 어머니가 담배를 붙여 문다. 재떨이를 성급히 두드린다. 이런 대목은 담배를 피울 처지도 못되던 첫째 어머니의 궁핍상과는 달라진 모습



이다. 무엇보다 첫째와 어머니의 관계설정이 좀 더 여유 있게 그려져 있다. 원본에는 “오냐 이놈아, 어려서부터 네놈이 어미의 머리끄덩이를 함부로 뜯어내더니, 그 버릇이 이때껏 남아서 밥 굵게 되었으니 좋겠다, 이놈!”이→“오냐 이놈아, 어려서부터 밥을 때리기 일쫓 더니 그 버릇이 여태껏 남아서 밥 굵게 되었으니 좋겠다! 이놈.”으로 바뀌어있다. 강경애가 본 밀바닥 인생 첫째의 삶은 어미의 머리끄덩이도 뜯어내는 본능과 무지의 그것이었었는데 수정 본에서는 인물의 전형을 중요시하는 리얼리즘의 원칙을 존중하여 의식화 가능성이 있는 첫째로 만 들고 있다.

나아가서 비어와 비정(非情)이 사정없이 등장하는 첫째와 어머니의 대화와 상황은 통으로 빠져있다. 밥을 떼여 장리쌀마저 얻은 길이 없고 밥을 얻어 올 이서방마저 오지 않자 첫째 모자는 극심한 허기에 시달린다. 이 때 첫째 어머니는 도토리 밥을 얻어 오는데 첫째는 어머니를 돌아봄 없이 혼자 다 먹고 또 없수? 한다. 첫째어머니는 첫째 혼자 다 먹자 야속한 생각에 못 견디게 가슴이 쓰리다.

“이에 무섭다 흥! 혼자 다 처먹구두, 뭐가 나빠서 그러냐.”

“이놈아, 너만 트림까지 하도록 처먹을 것이 뭐냐!”

“이에 이놈의 새끼야, 넌 트림까지 하지 않니. 처먹었기에 트림을 하지. 이놈아, 그래 너만 처먹고 살려느냐. 다른 사람은 다 죽고……그것을 같이 먹겠다고 가지고 오니께 저만 다 처먹어. 어데보자 이놈아, 에미를 그렇게 하는 데가 어데 있나, 하늘이 있니라! 응……응…….”

이런 식으로 모자가 먹을 것을 놓고 싸우는 모습 등이 들어있는 긴 대목이→첫째 어머니는 자기도 몇 술 얻어먹을까 하였다가, 아들이 저렇게 덤비고 있으니 도토리 한 알 입에 대어볼 맘조차 못 내었다. “어머니도 잡수!” “나는 몇 술 먹고 왔다.”로 간단히 바뀌었다. 원본의 첫

째와 어머니는 그야말로 밑바닥 거지 수준인데 비하여 수정본의 첫째와 어머니는 거지 수준을 벗어나 있다.

그 외 신철이 옥점의 방에서 보내는 한 회분(59회)과 신철이 옥에서 잡념에 빠지는 한 회분(115회)이 빠져있는 것은 신철의 비중을 더 줄이기 위한 것인 듯싶다.

이와 같이 신문 연재본과 북한판 수정 본을 비교해보면 ①항의 방언을 북한 식 표준어로 바꾼 것은 작가의 뜻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 일어로 된 대화를 우리말로 바꾼 것 역시 작가의 뜻이 아닐 것으로 보였다. 체험과 현장감을 존중하여 글을 쓰는 강경애가 표준어와 우리말로 수정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②항의 문장 수정 역시 세계관에 맞게 성격묘사와 어조를 통일 한 것이 리얼리즘 기술 법에 맞다고 해도 강경애가 그린 최하층 계급의 첫째는 강경애만이 그릴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전형에 맞추어 수정한 첫째는 강경애의 수법이 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가 보는 견해이다. 오히려 원본과 수정본의 대조로써 체험을 소중히 하여 기술하고 있는 강경애 글쓰기 방식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문제」는 강경애가 스승으로 하였던 장하일의 사상적 지도가 없지 않았을 것, 따라서 북한 판 「인간문제」에도 장하일의 침삭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가정을 불식할 수만은 없다고 할 때 강경애의 글쓰기는 프롤레타리아 창작방법에 준한 「인간문제」에만 관심을 갖기보다 전 문학적 특징으로 드러나는 체험의 글쓰기에 보다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향소설의 모형<sup>16)</sup>으로 본 이재선교수도 강경애의 「인간문제」는 이런 식민지 사회의 모순, 정치적 표현양식이면서도 정치성의 투명성이 덜 침해화된 용연의 묘사나 형상화가(인천보다-인용자) 훨씬 자연스

16) 이재선, 「경향소설의 모형」, 『인간문제』(소담출판사, 1996), p.304.

럽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작가의 경험과 관념의 거리를 드러내주는 현상일는지도 모른다.”고 하여 체험을 바탕으로 한 강경애의 글쓰기가 관념을 드러내는 방식보다 주목됨을 말하고 있다. 중편소설 「소금」이 그렇듯이 강경애소설의 주인공은 결말부분에 이르러서야 자각을 하는 구조로서 등장인물들은 무지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인간문제」는 역시 이런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신문연재본을 정본으로 하여 살펴야 할 것이다.

### 2.3 간도체험과 항일서사

강경애는 31년 장하일과 결혼하여 처음 간도에 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연변의 문학사와 북한의 강경애론에는 그 이전 약 2년 동안 용정일대에서 교육기관의 임시교원으로 일해보기도 하고 끼니를 넘기는 고초를 겪어보기도 했<sup>17)</sup>으며 또한 “간도에서 빨치산의 진면목을 포착하고자 유격대에 들어가려고 한 일도 있었다.”<sup>18)</sup>고 쓰고 있다. 박화성은 앞서의 인터뷰에서 강경애가 간도에 간 이유를 “가난과 처녀 때부터 양주동과 이려고, 저려고 하여 사생활이 복잡하고 재주는 있고 해서 흘러간 것”이라고 하였다.<sup>19)</sup> 이 증언에서 주목되는 것이 “양주동과 이려고저려고 해서”라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강경애는 장하일과 결혼해서 간도에 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것은 강경애의 수필에

17) 김현순, 「강경애론」, 『현대작가론』(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1), p.297. 이상경, 『강경애 전집』, p.845에서 재인.

18) 은중섭, 『조선근대 및 해방 전 현대소설사 연구』 2(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출판사, 1986), p.77. 이상경, 위의 책, p.846에서 재인.

19) 필자는 87년 쓴 논문에서 이 대목에서 ‘가난’만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었다. 서정자, 「일제강점기 한국여류소설연구」(숙명여대대학원 박사논문, 1987), 『한국근대여성소설연구』(국학자료원, 1999), p.128.

그렇게 씌어있는데 근거하였는데<sup>20)</sup> 그러나 북한의 연구자료와 고일신의 증언으로 미루어 볼 때 박화성의 증언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박화성은 이 때 강경애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복잡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박화성이 말하는 강경애가 간도에 간시기는 장하일과 결혼하기 전일 가능성이 높다. 이 방랑에서 강경애는 병을 얻어 돌아온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그의 수필에서 간도에 처음 간 시기가 1931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착오가 된다. 어쨌든 이때의 간도(만주?) 체험과 장하일과 결혼하여 간도로 가서 10여 년 거주한 체험을 바탕으로 강경애는 간도체험을 소설화하기 시작한다.

강경애의 모든 소설은 간도에서 쓴 것이라고 단정한 연구자가 있지만 장편 「어머니와 딸」(1931) 「파금」(1931)은 간도로 이주하기 전에 썼다고 본다. 이 두 작품은 발표시기로 보아 간도방랑 이후 고향에 돌아와 언니가 경영하는 서선여관에 있거나 최문려의 사랑방에서 자취하면서, 또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써서 게재를 부탁하고 간도로 갔다고 보아야 무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 두 작품 뒤에 발표된 단편 「그 여자」(1932)부터 작품 경향이 달라지고 본격적 간도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장하일을 만나기 전 씌어진 장편 「어머니와 딸」, 단편 「파금」도 경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여자」이후 간도체험이 반영된 소설은 이념적 경사가 뚜렷이 나타난다. 단편 「부자」(1933), 「채진」(1933), 「축구전」(1933) 등이 그것이다. 간도에서 쓴 이 초기소설들은 계급의식을 뚜렷이 드러내는 대신 인물의 성격화에서는 미숙을 보이는 경우이다. 필자는 이 시기의 강경애의 소설이 장하일과의 만남에서 받은 영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본다. 강경애의 소설이 본 궤도에 오른 것은 두

20) 강경애, 「간도야 잘 있거라, 간도를 떠나면서」, 이상경, 『강경애 전집』, p.716.

말 할 것 없이 중편 「소금」, 장편 「인간문제」가 씌어지면서부터이다. 간도체험을 반영하는 소설에서도 체험은 그로 하여금 새로운 창작방법을 구사하게 하였다. 「소금」과 「인간문제」는 그런 점에서 좋은 대조를 이룬다.<sup>21)</sup> 강경애는 서울과 장연, 간도를 오가면서 작품 활동을 하였는데 때로는 장연에 오래 머물기도 해서 그 기간 장하일은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한 대목으로 지목되기도 한다.<sup>22)</sup>

간도에 와서 강경애의 의식이 바뀌었음을 증명하는 소설 「그 여자」를 보자. 「그 여자」에 앞서 쓴 「어머니와 딸」(1931)의 주인공 옥이는 소설 말미에서 고향에서 올라온 김영철선생으로부터 고향소식을 듣는다. 작년 가을에 쇠돌네가 북만주로 가고 올 봄에도 십여 가구가 만주로 떠났다는 말을 하자 옥이는 “만주에서는 누가 이마에 손 얹고 기다린답더이까?”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땅이 흔하면 저저 준다나요! 내 땅을 떠나서 가면 무얼 해요. 이제는 떠나겠다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거들랑 선생님께서 말려주세요. 아니 반쯤 죽여주세요! 굶어죽어도 내 땅에서 죽고 빌어먹어도 내 고향에서 먹어야지요.<sup>23)</sup>

21) 서정자, 『한국근대여성소설연구』, 앞의 책, p.145. 현실과 소설구조 참조. 앞장에서 체험을 중시한 「인간문제」의 기술을 살펴보았지만 「인간문제」는 프롤레타리아 창작방법에 충실히 따른 작품이다. 이에 반하여 「소금」은 프로문학의 공식을 따르지 않았다. 체험을 극적으로 부각하는 수법으로 주인공이 체험을 통해 차츰 각성하는 구조이다.

22) 채훈, 「강경애론」, 『재만 한국문학연구』(깊은 샘, 1990), p.172.

임현영 교수는 “특히 지하활동을 하다가 전향한 남편 때문에 강경애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외롭고 가난하게 지낸 성싶다.” 고 하였는데(임현영, 「비판적 사실주의의 소중한 열매」, 『강경애전집』 1 해설(열사람, 1988), p.312.), 이상경 교수는 북한의 연구자료에서 장하일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이 없다고 쓰고 있다.(이상경, 앞의 책). 장하일에 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해 이러한 의문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23) 강경애, 「어머니와 딸」, 이상경, 『강경애 전집』, p.131.

그런데 「어머니와 딸」이후에 쓴 「그 여자」의 주인공 마리아가 부인 청년회 초청 연설에서 간도 농민을 향하여 비슷한 발언을 한다. 간도 농민들은 이 말을 듣자 무의식간에 호응 하는 비웃음과 함께 옥 쓸어 일어나 “민족이 뭐냐, 내 땅이 뭐냐,” 하면서 난동을 부리게 된다. 「어머니와 딸」에서 주인공 옥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준 이 말은 곧 작가의 목소리라 할 수 있다. 작가는 긍정적 주인공을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그 여자」의 부정적인 주인공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은 곧 일찍이 내 비쳤던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는 작품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앞의 옥이의 발화는 강경애가 혼자 간도 방랑을 하면서 가졌던 생각인 것 같고, 뒤의 마리아의 발화는 장하일과 간도에 다시 간 후 자신의 생각을 반성하게 된 것인 듯하다.

그 증거처럼 간도에 와서 쓴 「부자」, 「채전」, 「축구전」은 이념적 조직과 연계된 이야기나 사회주의적 전망을 담고 있다. 장하일이나 강경애가 어떤 조직과 연계되어있었는지 아직 밝혀진 것은 없다.<sup>24)</sup> 그러나 소설 속에서 주인공은 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경향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강경애가 일종의 변화, 또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기를 거쳐서 강경애는 이념을 앞세우기보다 이러한 이념에 눈 떠가는 체험을 제시하는 단편 「유무」, 중편 「소금」 등 강경애 특유의 현장감 넘치는 작품을 낳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간도에서 체험한 항일운동가들의 이야기가 태어난 것이다.<sup>25)</sup>

24) 임현영 교수는 “그녀의 체험의 범위를 넘어서 「소금」이나 「인간문제」 등에 나타난 사회운동과 노동현장의 생생한 묘사는 강경애부부가 길으로 나타내지 않았던 많은 활동에 연관되었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라 하였다. 임현영, 위의 책, p.312.

25) Spacks, 'Women's Stories, Women's Selves,' *The Hudson Review* 30 1977.

「소금」은 한 중 일 러 만 오족 불협화의 살육장이자 일본 관동군의 보조병력 자위단, 농민 자위대, 구 동북 군벌과 보위단, 반만 항일 세력을 토벌하는 토벌단 등이 수시로 출몰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인 지주 팡동의 땅을 소작하다가 남편을 잃고 아들은 가출하여 단 둘만 남고만 모녀의 이야기이다. 이들은 고향에서 땅을 떼이고 이민을 왔으나 공산당에 남편을 잃고 아들은 공산당으로 잡혀 처형된다. 정조를 유린하고 아이까지 배게 한 지주 팡동으로부터 아들이 공산당이라는 이유로 쫓겨난 주인공은 해란강변 어떤 헛간에서 아이를 낳고 살기 위해 유모로 취직했다가 자신의 아이 둘을 열병에 잃는다. 주인공은 소금 밀수를 하는데 이 때 만난 공산당의 따뜻한 위로가 밀수 사업 단속을 나온 순사에게 붙잡힐 때에야 생각하면서 봉식이 공산당이 된 이유를 깨닫는다는 줄거리이다. 페트리시아 스텝스는 여성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플롯을 창조한다고 말한 바 있다.<sup>26)</sup> 「소금」의 경우 세계관과 창작방법에 맞추었다기보다 자신의 체험에 비증을 둔 소설로서 강경애 특유의 플롯이 드러난 소설이다. 「모자」는 항일 운동가의 가족이 겪는 고난을 그린 것이다. 남편의 하는 일에 동조하던 시형과 주변이, 시국이 바뀌자 일제에 영합하면서 오히려 멀리하는 인심 속에, 갈 곳이 없어 눈 속을 헤매는 이야기로서 항일운동가와 그 가족이야기가 드문 우리문학에서 현장증언 적 작품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역시도 프로문학 창작방법과는 무관한 구조이다. 「원고료 이백 원」은 자전적 소설로서 아마도 「인간

pp.29~46. 김성례, 「여성자기진술의 양식과 문체의 발견을 위하여」, 김경수 외, 『페미니즘과 문학비평』(고려원, 1994), p.20에서 재인.

26) 강경애의 「소금」은 발표 당시 검열로 마지막 부분이 지워져있다. 이 지워져 있는 부분은 지워진 상태로 인쇄가 된 것이 아니라 한 권 한 권 먹물로 지웠다. 고려대 본과 영인본의 지워진 상태가 달라 붓으로 하나하나 지운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를 연재하고 받은 것으로 보이는 원고료 이백 원의 용도를 둘러싸고 남편과 아내가 다툰 이야기이다. 처음 만져보는 큰돈을 보니 궁핍했던 과거가 생각나면서 가져보지 못한 반지와 외투 등을 사고 싶어하는 주인공과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살이를 하고 있는 동지의 뒷바라지를 하자는 남편과의 다툼 속에 간도에서 활동하는 항일 운동가들의 삶이 비쳐진다. 「번뇌」역시 항일운동을 하다가 옥에 들어가 7년 만에 나온 주인공이 동지의 집에 머물면서 동지의 아내 계순을 사랑한 이야기를 담은 것이다. 주인공은 함흥에서 태어나 해삼위에서 성장하여 러시아의 적당에 들었다가 주의자가 되어 만주로 나오게 됐는데 관군과 홍의적에 쫓기면서 이 사상이 더욱 굳어져서 이에 일생을 바치리라고 굳게 결심하게 된다.

되놈의 만두 몇 개만 포켓에 넣어 가지면 이 넓은 만주천지를 번개 불같이 뛰었지요. 여기에 따라 일어나는 민중의 의식이야말로 바람에 풍기는 불길 같았지요. 간도의 민중! 그들은 조선에서 살래야 살 수 없어 죽을 각오를 하고 뛰쳐나온 사람이 아닙니까. 어쨌든 간도의 군중처럼 총칼의 맛을 본 군중은 없으리다. 뚜렷이 드러난 사변만으로도 이번까지 몇 번입니까.27)

간도에서 목격한 이러한 실감나는 묘사는 우리 근대사의 중요한 증언이기도 하며 항일문학으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게 한다. 「어둠」은 간도지방에 있었던 제 4차 간도공산당사건의 관련자들 18명이 사형 당한 실제사건을 소설의 소재로 삼아 쓴 작품이다. 현장과 체험을 소설화하는 강경애의 글쓰기 방식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찍이 최초의 여성문학평론가 임순득은 강경애가 이 사건을 소설로 쓴 용기

27) 강경애, 「번뇌」, 이상경, 『강경애 전집』, p.582.



를 극찬하고 이 사실을 외면한 작가들은 치인으로 매도한 바 있다.<sup>28)</sup> 이처럼 간도를 배경으로 한 강경애의 항일서사들은 체험을 소설화하는 강경애 글쓰기 방식을 확증하는 것들이다.

### 3. 나오며

강경애의 체험과 그 글쓰기방식에 역점을 두고 그의 문학을 살펴보았다. 그의 대표작 「인간문제」가 리얼리즘 소설의 탁월한 성과로 평가되는 반면 체험을 소설화하는 강경애의 글쓰기 방식이 낡은 그의 생동감 넘치는 소설적 특성이 주목되지 못하고 있음에 체험의 소설화라고 명명할 수 있는 강경애의 글쓰기를 살펴본 것이다. 극도로 궁핍한 농촌과 도시의 체험, 유 이민의 땅이자 항일 독립운동의 거점인 간도의 체험,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체험은 그로 하여금 당시의 사상적 주류이자 현실극복의 논리인 계급사상을 받아들이게 하였다. 그러나 언제나 체험에서 얻은 현실을 정직하게 반영하고자 애쓴 강경애는 특유의 소설세계를 이룩하였다. 우선 감각묘사에 탁월한 그의 체험기술에서 궁핍을 드러내는 ‘먹는’ 묘사에 미각묘사가 없는 것, 끝내는 먹는 일을 저주 그것으로 그림으로써 식민지현실이 갈수록 비참해짐을 나타내 빈궁소설에 성공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 장편 「인간문제」의 판본 비교를 통해 작가의 체험을 기술하는 글쓰기 방식을 확인하였고 또한 이 체험을 중시하는 기법이 그대로 나타난 신문연재본이 정본이 되어야 함을 논증해보았다. 한편 간도체험이 항일서사를 낳은 것과 이 역

28) 임순득, 「여류작가 재인식론」, 『조선일보』(1938.1.28).

서정자, 「최초의 여성문학평론가 임순득론」, 『청파문학』(1990). 서정자, 『한국여성소설과 비평』(푸른사상사, 2001), p.205.

시 체험을 기술하는 강경애의 글쓰기 방식의 하나임을 살펴보았다.

강경애의 여성체험이 반영된 여성체험의 서사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로 줄였다. 어머니의 삶을 지켜보면서 전통적 여성의 삶에 대해 회의와 비판의식을 지녔을 강경애는 숭의여학교에 다니면서 보다 여성에 대해 적극적 인식을 지니게 됐을 것이다. 숭의여학교는 송죽회 등 애국여성단체를 결성하는 등 여성운동의 주역을 많이 배출한 기독교계 학교이다. 여성해방의 선구적 의식에서 발간된 『여자계』는 1917년 숭의여중학교 동창회에서 창간하여 동경여자유학생 친목회에 넘겨주었는데 이 잡지는 여성의 자각을 고취하고 여성의 계몽과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등 시기적으로나 내용으로나 매우 선구적인 잡지이다. 강경애의 재학 시기가 1921년~1923년이므로 이의 영향을 추정해 볼 만하다.<sup>29)</sup> 강경애는 근우회 장연지회에 관여하기도 하였는데 강경애가 양주동과 서울에서 동거생활을 하는 등 대담한 행동을 한 데에는 문학에 대한 열정과 여성해방의식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여성체험은 그로 하여금 페미니즘문학을 낳게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른 글에서 언급한 바 있다.<sup>30)</sup>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강경애는 아이를 낳은 체험이 없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는데 채훈교수가 강경애의 수필 「내가 좋아하는 술」<sup>31)</sup>에서 “흡사히 내가 집에 두고 온 내 애기의 다방머리 같았고”의 구절로 이 정설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자료를 보태보면 강경애의 수필 「어촌점묘」(1935)에서도 “귀엽다 저 모양…내 애기의 머리털같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그런데 최정희의 「여류작가군상」<sup>32)</sup>

29) 서정자, 「페미니스트 성장소설과 자기발견의 체험-강경애의 「어머니와 딸」, 「인간문제」, 「소금」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소설과 비평』(푸른사상사, 2001), p.16.

30) 서정자, 위의 책.

31) 발표지, 시기 미상, 삼성출판사 판 계재.

32) 최정희, 「여류작가군상」, 『우리문학』(1946.2 창간호).

에 “강경애가 아이 낳으려고 병원에 왔다”는 말이 나온다. 중이염 등 지병이 있어 병원에 오는 길이 이렇게 잘못 전해졌는지 모르나 작가가 신이 쓴 수필에 “내 얘기”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은 그에게 아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치기 어렵게 한다.<sup>33)</sup> 그의 소설 「소금」, 「마약」 등에서 모성의 묘사를 실감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시해 본 것이다.

## □ 참고문헌

### 1. 강경애 작품 출판 자료

- 「어둠」,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조선일보사 출판부, 1937), pp.1~334.  
 「지하촌」, 『여류단편결작집』(조선일보사 출판부, 1939), pp.1~320.  
 「인간문제」, 『한국장편문학대계』 12권(성음사, 1970).  
 강경애 외 저, 「지하촌」, 『지하촌』(현문사, 1977), pp.5~33.  
 「인간문제」 「지하촌」 수필, 『한국현대문학전집』 12(삼성출판사, 1978), pp.13~262.  
 「해고」 「지하촌」 「모자」 「어둠」, 『현대한국단편문학전집』 5(금성출판사, 1981), pp.226~328.  
 강경애 등 합저, 「지하촌」, 『지하촌』 외(경림출판사, 1982), pp.5~33.  
 강경애 지음·손소희 지음, 「인간문제」 「지하촌」, 『인간문제』·『남풍』(동서문화사, 1984), pp.11~338.  
 강경애·손소희 지, 「인간문제」, 『인간문제』·『남풍』(양우당, 1986).  
 강경애·백신애·김명순 공저, 「해고」 「산남」 「지하촌」, 『해방 전 여류 작가선집』(범조사, 1987), pp.9~81.  
 강경애 등 저, 「인간문제」 「지하촌」, 『동서한국문학전집』 4권(동서문화사, 1987),

33) 현경준, 「문학풍토기-간도편」, 『인문평론』(1940.6). 현경준은 1940년 쓴 글에서 강경애가 “어린애가 없어서 탄식이지만”이라고 아이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의 강경애의 글에서 ‘내 얘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으니 아이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을 가져보게 된다.

pp.171~341.

임현영 · 오현주 편, 「인간문제」, 「지하촌」 「채전」 「축구전」, 『강경애전집』 1 『인간문제』(열사람, 1988), pp.1~318.

김성수 엮음, 「원고료 이백 원」, 『카프대표소설선』 1-2(사계절, 1988), pp.346~354.

박화성 외 지음, 엄혜숙 · 오현주 공동 엮음, 「소금」, 『유리 파수꾼』(동녘, 1989), pp.309~323.

금자당 편, 「지하촌」, 『한국 대표 단편선』 2, (금자당, 1990), pp.77~110.

[1910 - 1950], 나혜석 외 지음, 서정자 엮음, 「그여자」 「소금」, 『한국여성소설선 1』(갑인출판사, 1991), pp.115~174.

강경애 저, 「인간문제」, 『인간 문제』(창작과 비평사, 1992), pp.1~383.

이어령 · 이청준 · 권영민 공 편집, 「지하촌」, 『에센스 한국 단편 문학』 3(한양, 1993), pp.265~298.

朴花城...[等]著, めんどりの會 編譯, 「鹽」, 『ガラスの番人 : 韓國女性作家短編集』 1925-1988年(凱風社, 1994), pp.28~77.

강경애 저, 「인간문제」 「소금」, (장편소설) 『인간문제』(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강경애, 「인간문제」, 『인간문제』(신원문화사, 1994).

강경애 외, 「지하촌」 「산남」, 『정통한국문학대계』 63(어문각, 1994), pp.484~520.

강경애 저 · 김사량 저, 「인간문제」 「소금」, 『인간문제』 · 『낙조』 외(동아출판사, 1995).

강경애, 『인간문제』(소담출판사, 1996).

강경애 외, 조남철 엮음, 「지하촌」, 『중국내 조선인 소설선집』 해방전편(평민사, 1998), pp.33~65.

강경애 편, 이주형 외 편저, 「지하촌」 「파금」 「어머니와 딸」 「부자」 「젊은 어머니」 「채전」 「축구전」 「유무」 「소금」 「인간문제」 「동정」 「모자」 「원고료이백원」 「해고」 「변뇌」 「산남」 「어둠」 「마약」 「검둥이」, 『한국근대 단편소설대계 2』(한국인문과학원, 1999), pp.335~727.

홍신문화사 편, 「지하촌」, (중고생이 꼭 읽어야 할) 『한국단편소설』 5(홍신문화사, 1999).

- 한국현대소설학회 편, 「지하촌」, 『한국근대소설』 2(이희문화사, 1999), pp.173~217.
- 강경애 지음, 『인간문제』, (범한, 1999).
- 강경애 지음, 이상경 엮음, 장 단편소설 및 시·수필수록, 『강경애 전집』(소명출판, 1999, 개정판 2002), pp.1~891.
- 이정희 엮음, 「원고료이백 원」, (스무살을 위한) 『페미니즘 소설』(청동거울, 2002), pp.25~33.
- 송명희·안숙원·이태수 편저, 「소금」, 『페미니즘 정전 읽기』 2(푸른사상사, 2002), pp.59~114.
- 강경애 외 지음, 방민호 엮음, 「원고료 이백 원」, 『꽃을 잃고 나는 쓴다』(대한교과서, 2004), pp.21~32.
- 이광수 외 지음, 방민호 엮음, 「산남」, 『구보씨의 얼굴』(대한교과서, 2004), pp.187~204.

## 2. 논문 평론

- 강덕금, 히구치이치요오(樋口一葉)의 「키재기」와 강경애의 「어머니와 딸」에 대한 고찰(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p.1~50.
- 김기진, 「구각에서의 탈출」, 『신가정』(1935.1), 영인본, p.453.
- 김성례, 「여성자기진술의 양식과 문체의 발견을 위하여」, 김경수 외, 『페미니즘과 문학비평』(고려원, 1994), pp.11~33.
- 김재영, 「민중 속에서 변혁 꿈꾸기-여성리얼리스트 강경애론」(동아출판사 한국소설문학대계 17 강경애편 해설, 1995), pp.531~541.
- 김창현, 「강경애의 소설 작품에 대하여」, 『인간문제』(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p.11.
- 방민호, 「고통과 비애와 상실의 기록」, 『꽃을 잃고 나는 쓴다』(대한교과서, 2004), pp.3~18.
- 서정자, 「페미니스트 성장소설과 자기발견의 체험」: 강경애의 「어머니와 딸」 「인간문제」 「소금」을 중심으로(『한국여성학』 7집, 한국여성학회, 1991. 『한국여성소설과 비평』, 푸른사상, 2001), pp.11~42.
- 이규희, 「강경애론-빛과 어둠의 절규」(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5), pp.1~135.

- 이상경, 「강경애와 인간문제」, 『인간문제』(창작과비평사, 1992), pp.365~383.
- 이재선, 「경향소설의 모형 「인간문제」」 해설(소담출판사, 1996), pp.304~310.
- 임현영, 「비판적 사실주의의 소중한 열매- 「인간문제」를 중심한 강경애의 소설」, 『강경애전집』 1 해설(열사람, 1988), pp.311~318.
- 장문평, 「요절한 여류들 해방 전 여류작가선집」 해설(범조사, 1987), pp.5~7.
- 장문평, 「교정과 교정」, 『낙관주의의 거부』(돌출새김, 2004), pp.400~404.
- 정영화, 「1930년대 여성문학의 근대성 인식양상 연구-강경애와 이선희를 중심으로-」(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pp.1~142.
- 주미연, 「에이드리언 리치와 강경애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상」(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p.1~57.
- Spacks M. Patricia, 'Women's Stories, Women's Selves,' *The Hudson Review* 30, 1977, pp.29~46.

### 3. 단행본

- 김정화, 『강경애 연구』(범학사, 2000), pp.1~197.
- 서정자, 『한국근대여성소설연구』(국학자료원, 1999), pp.1~356.
- 서정자, 『한국여성소설과 비평』(푸른사상사, 2001), pp.1~643.
- 이상경, 『강경애』(건국대학교 출판부, 1997), pp.1~157.
-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소명출판, 2002), pp.1~361.
- 장문평 유고집, 『낙관주의의 거부』(돌출새김, 2004), pp.1~528.
- 채 훈, 『재만한국문학연구』(깊은샘, 1990), pp.1~323.

Abstract

**Novelization of Experience, Writing Manner of Kang Gyung-Ae**

Seo, Jung-Ja

This paper suggests that writing of Kang Gyung-Ae is featured by novelization of experiences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author's concern concentrated on *Human Issues* and realization of realism. I sought to understand the direction of world view of the author who was based on actual experiences and unrivalled in sensuous depictions. The North Korean version of *Human Issues* that may undergo addition or removal by Jang Ha Il or the publishing company is not understood as original of Kang Gyung-Ae. So I focused on underlining her unique writing manner through comparison of the North Korean version of *Human Issues* and the original published in local newspaper.

Writer Kang's experiences of Yanbian(Kan-do) greatly contributed to the promotion of the literature for resisting Japanese imperialists. Indeed, Manchuria and Yanbian give a unique legacy to our literature. As the bibliography on Kang Gyung-Ae has not been still known to South Korea completely, this paper aims to add some informative materials to the study on her literature.

**key words** : Kang Gyung-Ae, cannon, Novelization of experience, sensuous depictions.

■ 위 논문은 3월 30일 투고되어, 4월 20일 심사 완료 후, 5월 3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